

장학회관을 우리 손으로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장학기금 출연하여 명예로운 이름을 길이 남겨 주십시오.
삼한갑족 · 명문거족의 영예는 장학사업만이 유지해 줍니다.



아래를 둘러 우한 이미지므로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학회관 건립 출연금 약정제도 취지문

1. 이 나라 장래를 짚어질 동량(棟梁)의 거재(巨材)를 우리 한문에서 배출하기 위해 청한장학회 창립 6년만에 많은 일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2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2. 우리 청주한문은 장학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후손들이 높은 학문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어 선조들의 위업과 전통을 연연히 이어받아 국과 사회에 봉사하면서 한문을 빛내고 위상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3. 금융저축에 의한 이자수입이 부동산 임대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장학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동일한 액수의 기금으로 장학회관을 건립한다면 임대수입은 이자수입의 몇배가 된다. 취득세 소득세 등도 면제되므로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4. 장학회관 건립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이 '출연금 약정제'를 도입. 약정후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상한 종원에 대해서는 회원증 발급, 고유번호 부여 등과 함께 기념비와 장학회관에도 출연액수에 따라 명세록 또는 동판 명세록에 성함을 각인하여 그 공적을 영구히 후세에 대대로 전하고자 한다.

■장학회관 모금 목표 및 방향

▶ 장학회관 건립 모금목표

- 회관건립 소요액 총 55억원

▶ 장학회관 건립 모금방향

- 직접납부 또는 약정(3년 분할납부 가능)
- 3천만원부터 단위장학회 설립
- 기부, 증여, 유증에 의한 출연 환영(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 단위장학회 설립 내용

- 출연자가 장학생을 추천하고 장학증서도 직접 수여.
- 대내순순 이어가는 명예로운 유산(상속권 자식)
- 해외 거주 일가 출연 환영

■모금참여방법

기부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일가 여러분들의 참여가 한문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 약정방법

- 전화접수 : 02-720-6370~1 - 방문접수 : (재)청한장학회 및 중앙증진회 사무실(동일)
- Fax접수(소정양식) : 02-720-9215 - 온라인접수(소정양식) : www.chongjuhan.net

▶ 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09-25-0015-377 예금주 : (재)청한장학회 - 지로 : 회보

■장학회관 건립기금 출연자에 대한 예우

- ▶ 100만원 이상 : 장학회관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 ▶ 1,000만원 이상 : 1.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2. 장학회관 연회실 및 식당, 회의실 이용시 할인
- ▶ 3,000만원 이상 : 1.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2. 장학회관 연회실 및 식당, 회의실 이용시 할인
3. 단위장학회 설립
- ▶ 1억 원 이상 : 1.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및 사진전시
2. 장학회관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3. 단위장학회 설립
- ▶ 5억 원 이상 : 1. 총별 동판 부조(본인) 설치 및 해당층을 출연자의 층으로
2.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및 사진전시
3. 장학회관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4. 단위장학회 설립
- ▶ 10억원 이상 : 1. 회관내 '명예의 전당'에 흉상을 세우고 이력사항을 기록하여
후손들의 사표(師表)로 영구히 보존
2. 총별 동판부조(본인) 설치 및 해당층을 출연자의 층으로
3.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및 사진전시
4. 장학회관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5. 단위장학회 설립

■장학기금 출연시 세제혜택

▶ 개인소득으로 출연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34조 1항에 의거 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공제혜택

▶ 법인소득으로 출연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 범위내 공제혜택 ·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



■건축개요

알찬 사업준비로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고, 실패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곳—
든든한 바위 같고, 편안한 고향 같은 만남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웨딩홀, 회의실, 만남의 장소, 전시장 등

- 대지위치 : 교통이 원활한 신도시 지역
- 건축면적 : 331평방미터(100평)
- 건축구조 : 지상 10층, 지하 3층
- 주차대수 : 30대
- 연면적 : 3,306평방미터(1,000평)
- 건축구조 : 지상 10층, 지하 3층
- 주차대수 : 30대

▶ 일반시설(계획)

- 회원교류시설 : 만남의 장소, 명예의 전당, 재단사무실
- 회의실 : 각종 모임 및 회의장소
- 암대시설 : 은행, 전시장, 비즈니스센터, 스카이라운지, 업무용사무실 등
- 수익시설 : 웨딩홀, 연회실 등

■운영개요

여러분이 출연하는 건립기금은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과 한문발전을 위한 연구비 등으로 활용됩니다.

▶ 장학회관의 역할

- 한문의 궁지와 위상에 걸맞는 만남의 장
- 세계속의 한문으로 한문을 발전시키는 지원센터 기능
- 청한장학회의 장학생들이 유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

▶ 장학회관의 기대효과

- 장학회관 완공시 매년 수억원의 순수익 예상
- 수익금은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과 한문발전을 위한 역사연구비 지원 및 문화사업비 등으로 전액 사용

■모금개요

장학회관 건립 모금목표 55억원

100만 국내외 일가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적극 동참합시다.

- 종보 빌승시 동봉된 무정액 지로 이용
- 신용카드 : 홈페이지를 통한 납입
- 자동이체(CMS) : 인터넷뱅킹 거래은행에 의뢰
- 직접방문 : (재)청한장학회 사무실 방문 납입(주식, 부동산 등)

<宗 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에
 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자란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이다.

淸州韓氏報

發行人 韓娟洙
 編輯人兼
 主幹 韓東元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 720-6370~1 FAX : 720-9215

중단없는 전진의 해 되기를...

국내외 80만 일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뜻 하신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기축(己丑)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내외 80만 일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뜻 하신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안팎으로 어려웠던 여건속에서도 부족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종사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주신 각급 지역종친회와 각 종파 및 해외종친회의 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일가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가 여러분! 우리 종친회의 가장 큰 덕목은 「승조돈종」(崇祖敦宗)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을 숭배하고 동종(同宗)간에 화목한다는 「승조돈종」이야 말로 우리 종친회가 지향해야 할 지상(至上)의 가치이며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종친회 정관 제4조(목적)에 「승조돈종 사상 함양」을 가장 큰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승조돈종」은 결코 큰 소리를 외쳐대거나 말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으며, 종파를 초월한 애종의 뜨거운 가슴과 적극적인 추진력에 의한 사업을 통해서만이 성취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정관 제5조(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신조에 따라 저는 지난 수년간 ① 장학회관 건립기금 55억원 모금 (현재 모금액 20억여원) ② 인터넷한글대동족보 구축 ③ 청주한씨 역사관 건립 ④ 시조묘역 진입 위양로 직선화 (6억5,000만원 예산으로 1 2차로 나누어 지난 해 10월 완공) 및 시조묘역 조경공사 ⑤ 시조시향에 보다 많은 청장년 후손들이 참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완결하기도 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 일가들께서는 "되지도 않는 일을 벌려만 놓는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한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벌어져 가슴이 아프고 비애마저 느낍니다.

우리 한문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 성씨 문종들이 인정하는 명문 거족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역사에도 유래가 없는 세분 총리가 연이어 배출되었고 이분들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덕망과 신뢰를 받는 국가지도자로서 우리 한문과 조상을 빛내주었습니다. 이러한 전簫痴 세분 총리를 현관으로 모시고 모든 영광과 명예를 시조부군의 음덕으로 받들고 시조시향을 봉행했다면 시조부군께서도 그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또한 우리 한문의 명예가 더욱 빛났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일부 극소수의 일가분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절대 다수 일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행사를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조시향을 두 번 봉행하는 전대미문의 불경을 범함으로서 타 성씨들에게 우리 한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는 해증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종회 결의에 불복, 따로 봉행된 사향에는 불과 200여명이 참사했다고 합니다.

일가 여러분! 쉽게 되는 사업만 한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장학회관 건립과 장학사업 확대, 인터넷한글대동족보, 청주한씨 역사관 건립 등은 명문거족으로서의 한문의 위상을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 종친회가 해야 할 당위적(當為的)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성취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중앙종친회 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회장님 그리고 임원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서울시종친회장과 중앙종친회장을 맡아 종사를 돌보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절감하면서도 위대하셨던 조상님들과 후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당면과제들은 자체되거나 중단되어 서는 안된다는 사명감과 애종정신으로 봉사해 왔다고 김히 자부합니다. 「승조돈종」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을 「어렵다」「성과를 올릴 수 없다」는 이유로 기피한다면 종친회는 할아버지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개혁되고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오늘날에 와서는 먼 옛날 농경사회에서나 비유되던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년이 아니라 1년, 1개월, 아니 하루에도 강산이 변할만큼 빠른 초고속의 IT(정보기술)시대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종친회를 이끌어갈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IT시대에 걸맞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월27일에는 저의 22대 회장 임기만료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23대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우리 한문으로서는 올 기축년이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80만 청주한씨를 대표하는 중앙회장은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망과 함께 비전(vision)이 있고, 추진력도 있고, 혁신력이 있는 기업가적이고 CEO(최고경영자)적인 자질을 갖춘 역동적인 인물이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종정신, 봉사정신, 희생정신으로 봉사할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외교력도 갖춘 분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마침 중앙회 회장단회의는 지난 1월17일 전 농림부장관 韓甲洙고문을 23 대 회장에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갑수고문이야말로 적임자 중의 적임자라고 생각되며 오는 2월27일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될 것이 기대되며 그의 중앙회장 취임은 우리 종친회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원님, 그리고 종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본인은 중요한 종사의 마무리를 끝내지 못한 채 물러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인격과 덕망과 능력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분을 전국의 모든 일가분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추대하여 더욱 더 청주한문의 명예를 빛내고 이를하지 못한 필수과제인 종사를 매듭짓을 수 있도록 부디 모두가 동참하고 힘을 모아 보필한다면 반드시 이루하리라 확신하며 본인도 미력하나마 여러 종현님들의 대열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오랜 기간동안 부족한점이 많은 저에게 용기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임원님 여러분들과 전국의 모든 일가분들에게 다시 한번 무한한 존경심과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는 기필코 80만 일가가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가 여러분! 올해는 지난해에 못지않게 실물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외의 일부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으니 의욕을 잃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가들이 강녕하시고 모든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앙종친회 회장 겸 (재)청한장학회 이사장
한현수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회비, 현성금, 종보비)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족보 수단금)
- ◆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7 (장학기금)

전 총리 한덕수고문 주미대사 내정 경제부처에서만 공직 지낸 통상전문가

국무총리를 역임한 중앙종친회 韓惠洙고문은 지난 1월18일 주미대사로 내정되어 외교적인 절차가 끝나는대로 부임할 예정이다. 31세순으로 안양공파인 덕수고문은 지난 2007년3월부터 2008년2월까지 1년간 국무총리를 지냈다.

국무총리까지 지낸 덕수고문이 주미대사에 발탁된 데 대해 관계와 언론계에서는 그가 경제 및 통상전문가로서 현재 한·미간의 가장 큰 현안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완결짓고 오바마 새 정부와의 원만한 외교관계 수행에 적임자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덕수고문은 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면서 한·미FTA를 지원했으며, 경제부총리를 물려난 뒤에도 대통령 직속의 한·미FTA 제결지원위원회 위원장 겸 한·미FTA 특보를 지냈다.

덕수고문 프로필

〈학력·경력〉

▲전북 전주 출신 (49년생)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미국 하버드 대학에 유학하여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8회 행정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생활 시작 ▲통상 산업부 차관 ▲특허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정책 기획수석비서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주OECD대사 ▲산업연구원장 ▲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부장관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특보, 국무총리 ▲2003년 제1회 암침어워드(한미 경제교류 공헌상) 수상



「청주한씨 '인터넷' 한글대동족보」

초창기와는 달리 수단 신청이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새로 수단 신청을 하는 일가들에 대한 개통기간도 6개월 단위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5월31일까지의 수단 신청은 6월말에, 11월30일까지의 수단 신청은 12월말에 개통할 수 있게 됩니다.

◎ 수단비는 8천원입니다.

◎ 사진도 입력됩니다. 입력수수료는 1매당 10,000원입니다.

'인터넷족보'에 조상의 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 인물사진, 가문과 관련있는 유적사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진도 입력, 자손 대대로 볼 수 있습니다.

▲ 10cm■15cm=4인치×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의 사진을 족보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립시다. / 중앙종친회가 일가들의 조상을 찾아 드립니다. / 현수화장, '족보' 없으면 '뿌리' 없는 자손 됩니다”

〈연락처〉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인터넷대동족보'편찬위원회
(02) 720-6370~1, 9215(팩스 번호)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 陽命 상임고문
◆ 昇洙 명예회장
◆ 淳 중앙회장
◆ 부회장(지역회장)
希天 삼재위원장
相瑞 서울시회장
沃斗 부산시회장
燉燮 대구·경북 회장
寛熙 인천시회장
判鉉 광주시회장
甲洙 대전시회장
潤熙 을산시회장
昌燮 경기도회장
明洙 강원도회장
建錫 경남도회장
泳教 전북도회장
相旭 충남도회장
章壎 충북도회장
大燮 제주도회장
熙相 일본회장
泰熙 뉴욕회장
日高 LA회장
敬洙 샌프란시스코회장

◆ 부회장(종파회장)
春植 예빈윤공파
사숙공추모
漱泰 정혜공파
敬洙 서원군파
東錫 정당공파
鮮教 충성공파
根秀 동계공파
東億 문정공파

◆ 전담 부회장

星燮 종 무
貞圭 기 희
珖秀 총 무
成龍 조 직
德洙 재 정
愚仙 문 화
百 장 학
東元 종 보
一煥 제 전
相權 유적유물
太洙 청 년
錫寬 법 률
萬熙 교 육
希耕 여 성
澤洙 군산시회장
駿錫 이원피증회장
善鐘 영진토건사장
相鴻 전국철도공상회 회장
相英 청원위파종중 회장
명섭 명신기업(주) 회장
태동 죽산개발(주) 대표이사

◆ 감사

贊熙 전 관악구회장
在瑞 서대문구회장
元九 전 미LA회장
◎(재)청한장학회

◆ 이사 (괄호내는 단위장학회명)

洙 이사장
星燮 상임이사
陽命 이사 (시와공)
春植 이사 (우원공)
孝東 이사 (세마공)
太洙 이사 (성호공)
相旭 이사 (청암공)
(감사공)
五作 이사 (상훈공)
吉洙 이사 (국산공)
章壎 이사 (서범공)
明洙 이사 (교위공)
福燮 이사 (낙안공)
相瑞 이사 (충정공)
其洙 이사 (화정공)
漱泰 이사 (광천공)
善鐘 영진토건사장
熙燮 이사 (대구·경북)
상필 (청파공)
萬熙 이 사
希天 이 사
愚仙 이 사
成龍 이 사
泳教 이 사
基虎 이 사
判鉉 이 사
光鎬 이 사
貞圭 감 사
百

2009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

1. 자격

청주한씨 및 외가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정규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과 신입생

2. 구비서류

- 1) 장학금 신청서(본회 양식) 1통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전년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각 1통
- 4) 추천서 (광역시巢돌씻H, 문중 및 단위장학회 회장, 학교장 또는 학과장)
- 5) 재산세 과세 및 비과세 증명서 1통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2009년 2월 25일부터 청주한씨 각 광역시巢돌씻H, 문중 및 단위장학회

4. 최종 접수 마감

2009년 3월 20일까지 (재)청한장학회 사무실 (중앙종친회 내)

5. 선발 결과 통지

이사회에서 심사 후 선발된 학생에게 4월 15일까지 개별 통지

6. 장학증서 수여일 : 2009년 5월9일(토) 예정

7. 기타 : 1)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선발된 장학생은 필히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재)청한장학회 이사장 한현수
청한장학후원회 회장 한양명

2009년도 정기총회 공고

일시 : 2009년 2월 27일 (금) 오전 11시

장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02-709-3004, 3219) 용산구 삼각지, 국방부 맞은편

안건 : 1. 2008년도 주요사업실적 보고

2. 2009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3.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
4.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5. 임원개선
6. 기타사항

2009년 1월 19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회장 한현수

韓甲洙 전 장관 23대 중앙회장에 추대키로 洙회장 제의에 회장단회의서 만장일치 결의

중앙종친회(회장 洙)는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W컨벤션센터(구 하림각)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겸한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월28일 임기가 끝나는 22대 洗중양종친회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차기 23대 중앙종친회장에 전 농림부장관 甲洙고문을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결의했다.

甲洙고문은 극구 사양의 뜻을 밝혔으나 회장단회의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시巢 종친회장들과 각 종중을 대표하는 종파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오는 2월27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는 회장단회의 결의대로 차기 중앙종친회장에 甲洙고문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어 추대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洙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화기애애한 가운데 차기 회장에 甲洙고문을 추대하기로 결의하는 등 한 문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지난 10여년간 재정적으로 어려운 종친회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임원님들이 힘을 보태준 덕택이며 특히 熙錫회장 때부터 종사에 깊이 간여하면서 많은 기여를 한 春植고문의 뒷받침이 너무나 커웠고 또한 是南상임고문이 고령에도 종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의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다.

洙회장은 특히 지난 11월28일의 소란스러웠던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언급 "지난 95년 이후 10여년간 총회 등 주요 행사를 국방회관에서 가져왔는데 임시총회에서 소란이 있은 후 다시는 청주한씨종친회에 국방회관을 빌려주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려져 한문의 명예가 크게 손상된데 대해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는 승조돈중의 정신으로 회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조직체의 구성원은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다음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또한 조직에서는 소수의견도 들어주어야 하지만 다수의견과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의견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인사말들이 있었다.

惠洙(전 총리)고문=일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기쁘다. 甲洙고문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며 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추대되기를 바란다.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렵지만 총력을 다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가분들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문중에 큰 행운이 있기를 바

란다.
甲洙(전 농림장관)고문=2008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모두 잊으시고 교훈으로 삼아 더욱 더 화합하기를 바란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 진다'고 했다. 회장을 맡으라고 하는데 저는 능력도 없고 지금은 회장을 맡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보학(譖學)도 더 공부해야 하겠고 하는 일도 있으니 이번만은 양해해 달라. 모든 일가를 건강하기를 빈다.

陽命상임고문=雪松(갑수고문 아호)께서 회장직을 맡을 것으로 믿는다. 사양하고 있지만 80%는 수락한 것으로 믿는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자(일동 박수). 예전에 熙錫회장(전 국회부의장)께서 중앙종친회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雪松께서도 어렵겠지만 중앙회장을 맡아 큰 업적 남겨주시기 바란다.

양수고문=종친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洗회장에게 박수를 보내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회망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위기를 넘겨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春植고문=건배 제의 (오찬에 들어가면서)

孝東고문=나의 40년 종사(宗事)에 오늘 같이 기분 좋기는 처음이다. 10여년간 노고가 많았던 洗회장께서 雪松장관을 모시면 종사에 큰 보탬이 되겠다고 한 발언을 듣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다. 雪松에게 박수를 보내자.

<甲洙고문 프로필>

전남 나주 출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 대학원 중동경제과정 수료, 명지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제10회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제10대 국회의원, 한국 산업경제연구원 원장, 환경처 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남북경제공동위 남측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농림부장관,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장,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한국산업경제연구원 회장

韓甲洙 전 장관 23대 중앙회장에 추대키로 洙회장 제의에 회장단회의서 만장일치 결의

중앙회장 계속연임 제한하지 않기로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안 통과

중앙종친회(회장 洙)는 지난 11월2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회관에서 228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잇달아 열린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중앙종친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정관개정안 별향

이 정관개정안은 지난 11월14일 중앙종친회 회장단회의에서 樹泰부회장에 의해 발의되어 논의를 거친 끝에 만장일치로 총회에 부의(附議)하기로 결정되므로써 이날의 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개정전의 정관 제13조(임기) 1항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계속적인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관 13조 1항 중단서 부분을 삭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므로써 회장도 연임 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회장은 정관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이 개정안에 대해 친鸞龜孚像 있으므로 친鸞 양측에서 2명씩 친鸞 의견을 토론한 후 표결에 붙여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1명씩 추가되어 3명씩의 친鸞 토론을 가진 후 표결에 들어갔으며 이어 가결이 선포되었다.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 내용

제2조(소재지) 중 遷溯춘도와 시塑빈구에 遷搔, 遷塑 ト そ 춘도와 시塑빈구로 遷嘸.
제4조(목적) 중 세향을 시향으로 개정하고, 후손에 대한 장학과 계도'를 추가.
제5조(사업) 중 세향을 시향으로 개정.
제6조(고문)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제6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회장단의 인준을 거쳐 추대한다. 필요시 상임고문을 추대할 수도 있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회의에 참석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009년도 세입消憲敷翼袁 통과
이사회에서, 주요사업계획안도

중앙종친회(회장 洙)는 지난 11월2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회관에서 20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사회에서 星燮부회장으로부터 2008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받은 다음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안)과 세입消憲敷翼(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2009년도 사업계획 별향

현수회장은 "본인은 더 이상 회장을 연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천명하며, 따라서 본인의 계속연임을 위한 정관개정이라는 주장은 흡집을 내기 위한 억지주장"이라고 거취를 분명히 밝혔으나 일부 극소수 대의원들은 단상에 뛰어올라 마이크와 사회봉을 탈취,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수회장은 총회가 끝난 후 이날의 회의와 표결 전후의 경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친鸞 표결방법은 대의원의 동의와 재정에 의해 기립표결로 결정한 사항이다. 기립한 인원은 계수원이 정확하게 계수한 수치이고 결과는 절대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된 사항이다. 당초 계획은 이사회 개최 후 이어서 임시총회를 속개하기로 계획하고 공지를 했다. 그러나 1부 이사회가 개최될 때 진행 요원들의 협조요청을 무시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마무기내로 입장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발언권도 얻지 않고 여러 사람이 의사발언을 이어가는 바람에 질서가 무너지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려웠으며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회의는 임시총회와 다름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의장으로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묶어서 처리하자고 제의를 한 후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한 총회였다. 중앙종친회는 지난 10여년간 국방회관의 주 고객으로 환영받으며 회의장을 임대하여 이용해 왔는데 이번 임시총회에서의 소란 때문에 앞으로는 청주한씨종친회에 회의장을 빌려줄 수 없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어느 누구의 잘 잘못을 떠나 우리 청주한씨는 이 일로 명문이라는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제9조(의무)2항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을, '총회와 이사회 및 회장단회 의 결의사항의 이행'으로 개정.

제11조(임원)1항 '회장 1인(당연직 시조태위공종중 문장 및 이사장)' 중 이사장을 삭제하여 '회장 1인(당연직 시조태위공종중 문장'으로 개정.

제11조(임원)2항, 5항, 제12조(선출)2항, 3항 중 '시巢'를 '광역시巢'로 개정.

제12조(선출)4항 중 '회장이 지명한를 '회장이 임명한다'로 개정.

제13조(임기)1항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에서 단서 조항 삭제.

제38조(기구)3항 '중앙회의 상임이사는 (재)청한장학회의 상임이사를 겸직한다'를 삭제.

중앙회 1월5일 시무식

중앙종친회는 지난 1월5일 오전 10시 2009년도 시무식을 갖고 새 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31일 오후 3시에는 종무식을 갖고 2008 무자년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했다.

현수종친회장은 식사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종친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사무처 직원들과 모든 일가들에게 감사한다"고 치하하고 "올해는 더 어렵다고는 하지만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더욱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재임중 회비 미납 임원 해임하기로" 중앙종친회 회장단회의서 결의

중앙종친회(회장 淑)는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W컨벤션센터(구 하립각)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회의를 열고 회비를 미납한 임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한 끝에 오는 2월27일의 2009년도 정기총회 이전까지 임원 재임 중의 미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각급 지역회장과 각 종파회장들의 확인을 거친 후 임원직에서 해임하기로 했다.

회비 미납 임원에 대한 이날의 해임결의 조치는 중앙종친회 정관 제9조(의무) 3항의 「종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 규정과 「제9조의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회장단회의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는 제10조(징계) 1항에 근거한 것이며, 임원에서 해임되면 총회와 이사회를 비롯 각종 회의의 대의원 자격도 상실된다.

洙회장은 안건 제안설명을 통해 "중앙종친회는 종재(宗財)가 없어 임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현재 600여명의 임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50여명이 회비를 미납하고 있어 중앙종친회 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채도 늘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송조애종(愛宗)정신이 투철한 일가들이 임원으로 종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 취임하는 중앙 회장이 종친회를 운영하는데 입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비협조적인 폐단을 과감히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수회장은 특히 임원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언급, "임원들 중에는 10여년이 지나도록 의무적으로 나야 할 회비나 현성금 한푼 내지 않으면서 총회에 참석해서는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바르지 못한 관행이나 의식은 타파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조류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 있었다.

陽命상임고문=10여년간 心齋(현수회장 아호)회장의 노고가 너무 크다. 心齋회장에게 박수를 보내자
希天삼재회장=지난 10여년간 어려운 종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心齋회장에 이어 농림부장관을 지낸 甲洙고문에게 차기 회장을 인계하도록 결의한 오늘의 회기애애한 분위기에 감사한다.

孝東고문=앞으로 甲洙 전 장관을 회장으로 모시고 종사를 잘 해 나갈려면 종친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임원들은 빠짐없이 회비를 내야 한다.

成龍중앙회부회장=근본적으로 중앙종친회의 종재(宗財)가 마련되어야 한다. 임원들의 회비에만 의존해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洙회장=종재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장학회관만 건립되면 종재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약 1만2,000부 내외의 종보가 발행되고 있는데 1년에 2만원인 종보비만 잘 납입되어도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종보가 단체로 나가는데 한푼도 내지 않는 곳도 있다. 회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다.

潤熙울산시회장=임원들의 회비 납부는 정관상의 의무사항이다. 종친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비를 내지 않는 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星燮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2008년도 사업실적보고, 2008년도 세입消額(안),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안)과 세입消額(안)도 심의, 통과시켰다.

한상대일가 법무부검찰국장 취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임하던 한상대일가는 지난 1월19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되었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상대일가는 겸손하고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강조하는 외유내강형 검사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도 지내 검찰내에서는 국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1981년 고대 법대를 졸업, 같은 해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8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생

활을 시작하여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형사1부장, 부산지검과 인천지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 겸찰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한화진일가 청와대 환경비서관 취임 미국 UCLA 이학박사 출신

미국 UCLA 이학박사인 한화진(여 50)일가는 지난 1월20일 청와대 환경비서관으로 취임했다. 고려대 출신인 화진 일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원으로 재임 중 발탁되었다.

서강대 환경정책학과 겸임교수이기도 한 화진 일가는 대기 관리를 전공분야로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외 다수의 학술연구보고서를 낸 연구실적을 갖고 있으며 국가지속가능발

전위원회 기후변화전문위원, 산업자원부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위원도 지냈다.

한원교일가 서울시사진대전 특선 작품 '홍토지의 소경'(紅土地의 小景)

사진작가 韓元敎(서울청장년회 회장)일가는 지난 해 12월 제8회 서울특별시사진대전에 작품「홍토지의 소경」(紅土地의 小景)을 출품, 특선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12월9일 대학로 목금토갤러리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중앙종친회에서 淑회장, 春植예빈윤공파회장, 星燮부회장 등 임원들과 서울청장년회 회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축하했다.

이용권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특선작품 중에서 한원교작가의 「홍토지의 소경」은 해발 2,400m 높이의 농경지를 색색으로 물든 4월의 녹을 소작인 부부가 경작하는 모습으로 보기드문 색의 조화와 사실적인 풍경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이라고 격찬했다. 이 사진대전에는 150명의 사진인들이 203점을 출품했다.

고우번호	이 름	구 분	총후원금
1	중앙종친회	중앙종친회	303,378
12	춘식	우원공	202,035
10	양명	시와공	192,700
492	효동	세마공	101,500
4	칠석	성호공	100,090
289	상육	충남 천안시	100,060
2	록준	일본	100,000
1765	창우	일본	100,000
1785	강	감사공파안산종중	100,000
6	장훈	서범공	53,060
190	석호	대구 경북종친회	52,000
61	명수	교워공	50,300
98	기장	낙안공	50,200
933	길수	국산공	50,000
26	오작	상훈공	38,000
14	기수	회정공	36,500
106	상필	청파단위장학회	33,050
15	갑수	서울 종로구	11,498
1755	추태	광천단위장학회	11,080
20	만희	충정공	11,000
1753	만우	세마공	10,100
3	현수	충정공	10,000
219	순영	서울 영등포구	10,000
434	희상	일본	10,000
1394	청녕군파종회	충정공	10,000
1766	대섭	제주 제주시	10,000
1792	만엽	세마공	10,000
1865	만철	세마공	10,000
25	영교	전북 전주시	8,500
707	택수	전북 군산시	8,000
1811	창호	서울 영등포구	8,000
31	창성	서울 서초구	5,330
1115	우선	서울 서초구	5,030
621	진희	충정공	5,000
1602	충정공파종회	충정공	5,000
1832	세마공파 처시공	세마공	5,000
858	광수	서울 영등포구	3,600
1645	건석	경남 창원시	3,600
7	희경	서울 용산구	3,500
603	재준 청장년회	강원 춘천시	3,400
1816	심량	서울 관악구	3,200
5	운호	부산 동래구	3,100
97	국렬	전북 원주군	3,100
122	기인	경남 창원시	3,100
8	근이	경기 안양시	3,000
13	태동	대구 수성구	3,000
22	상용	서울 은평구	3,000
32	청광	서울 금천구	3,000
43	선종	전북 김제시	3,000
1771	광주 쌍효종중	광주	3,000
1776	문정공파종친회	서울	3,000
1818	기환	세마공	3,000
63	규철	경남 창원시	2,880
1411	광수	충정공	2,740
771	강북도봉종친회	서울	2,700
524	상완	서울 성북구	2,530
37	경석	서울 강남구	2,500
9	두현	서울 서초구	2,100
454	복섭	전남 강진군	2,020
11	옹호	서울 강남구	2,000
34	희천	전남 영광군	2,000
36	백준	서울 성북구	2,000
42	상운	충정공	2,000
107	송전	경기 이천시	2,000
468	이산시종친회	충남	2,000
537	상호	충정공	2,000
723	성룡	경기 광주시	2,000
1717	영소	경북 경주시	2,000
1819	정동	세마공	2,000
1883	세마공파 재영공	세마공	2,000
41	상남	서울 영등포구	1,910
808	영동고급회	경기 여주군	1,800
940	형하	경기 김포시	1,530
1124	달수	경기 고양시	1,500
1716	상도	서울 동대문구	1,500
1790	광전	경기 평택시	1,500
1255	덕우	충남 아산시	1,480
30	장길	경기 의정부시	1,400
183	이택	경기 용인시	1,400
1606	기연	전북 전주시	1,350
23	상호	서울 강북구	1,300
75	부천시종친회	경기 부천시	1,300
83	원희	인천 서구	1,300
118	태진	경북 구미시	1,300
739	원교	서울 마포구	1,300
497	대규	전북 김제시	1,261
87	종원	경기 김포시	1,260

고우번호	이 름	구 분	총후원금
276	규석	경기 김포시	1,260
463	요욱	서울 마포구	1,250
101	남수	광주 광산구	1,200
120	화갑	경기 고양시	1,200
139	만춘	강원 강릉시	1,200
1646	동명	서울 영등포구	1,200
1661	각동	세마공	1,200
1625	일설	미국	1,179
195	주호	충남 천안시	1,130
16	세영	서울 종로구	1,100
17	천안시종친회	충남 천안시	1,100
18	학수	경기 고양시	1,100
102	대희	경기 고양시	1,100
130	규화	서울 강동구	1,100
177	용환	대전 중구	1,100
484	일환	충북 청주시	1,100
630	군자	경기 안산시	1,100
742	두환	충북 청주시	1,100
902	태석	세마공	1,100
1294	현모	전북 전주시	1,100
1630	태인	전북 전주시	1,100
1145	충남14대손 ^{기념} 명종회	충북 청주시	1,080
1505	상한	경기 고양시	1,070
1751	기현	세마공	1,050
1867	진명	세마공	1,050
21	상서	충정공	1,030
111	은수	경기 김포시	1,030
181	귀성	전북 전주시	1,030
193	석훈	전북 전주시	1,030
1208	상수	전북 임실군	1,030
1404	갑수	대전 중구	1,030
1540	해동	경기 파주시	1,030
1557	병용	서울 성동구	1,030
160	선호	서울 성북구	1,020
1000	태교	서울 노원구	1,010
19	규삼	경기 화성시	1,000
24	승현	서울 은평구	1,000
27	우동	경남 경산시	1,000
28	익수	강원 춘천시	1,000
29	인옥	서울 용산구	1,000
33	태섭	서울 양천구	1,000
35	기황	서울 영등포구	1,000
47	영택	광주 남구	1,000
55	준석	서울 동작구	1,000
65	기달	서울 강북구	1,000
69	대현	경기 의정부시	1,000
79	성섭	경기 남양주시	1,000
91	판현	광주 동구	1,000
104	면희	강원 원주시	1,000
109	윤수	서울 송파구	1,000
150	상열	경기 남양주시	1,000
158	석영	서울 노원구	1,000
447	성교	대전 동구	1,000
448	남원종중	감사공파(의공)	1,000
493	백석옹종중	세마공	1,000
500	상일	서울 노원구	1,000
503	경수	경기 양주시	1,000
563	상열	경기 군포시	1,000
703	대희	전북 전주시	1,000
708	차령	경기 용인시	1,000
769	상옥	대구 동구	1,000
831	철웅	충북 제천시	1,000
932	기찬	경기 성남시	1,000
946	진	경남 마산시	1,000
1554	상우	세마공	1,000
1599	상권	전북 익산시	1,000
1633	석관	서울 성북구	1,000
1662	혁우	세마공	1,000
1663	면우	세마공	1,000
1664	인우	세마공	1,000
1665	치우	세마공	1,000
1728	덕구	대전 동구	1,000
1734	영수	강원 춘천시	1,000
1768	이환	충북 청주시	1,000
1769	동관	강원 강릉시	1,000
1770	동석	전남 영광군	1,000
1772	문화	전남 담양군	1,000
1774	병종	전남 영광군	1,000
1775	관희	인천 서구	1,000
1777	덕수	서울 종구	1,000
1780	고창군종친회	전북 고창군	1,000
1784	순모	전북 남원시	1,000
1809	신석	경기 성남시	1,000
1820	자원	세마공	1,000
1821	지원	세마공	1,000
1822	근우	세마공	1,000
1823	기명	세마공	1,000

고우번호	이 름	구 분	총후원금

</tbl

장학기금납부 내역 (7월~8월)

파전금 (7월~8월)

고유번호	이 름	금 액	누계
707	택수(전북 군산시)	1,000	8,000
63	규철(경남 창원시)	780	2,880
537	상호(충정공파)인천 남구	2,000	2,000
1540	해동(경기 파주시)	1,000	1,030
769	상옥(대구 동구)	300	1,000
326	모심(경기 안산시)	100	880
338	상락(서울 동작구)	100	650
1762	영도(경기 성남시)	50	500
834	기영(강원 강릉시)	10	290
1863	갑창(전북 전주시)	100	200
474	태수(서울 관악구)	1	170
260	충현(서울 노원구)	50	160
1586	정재(서울 용산구)	100	100
1730	선우(강원 강릉시)	10	100
1644	상옥(서울 영등포구)	10	90
1788	현택(서울 노원구)	50	80
1718	상희(전북 전주시)	10	80
1894	천수(서울 동작구)	30	30
1892	광수(서울 은평구)	20	20
1893	복석(전북 무주군)	20	20
1895	행근(전남 영암군)	20	20
합계		5,761	

부회장(제주도총친회장)	1,000
관희 부회장(인천시 회장)	1,000
일환 부회장(제천 전당)	500
동석 부회장(정당 공파 회장)	500
합계	3,000

단체증보비 (7월~8월)

부산 영도 구종친회(상원)	200
목포 시종 친회	100
월포 공종 중	100
낙안 공파(복설)	100
합계	500

운영회비 (7월~8월)

경수 부회장(서원군 회장)	500
추태 부회장(칠가파 회장)	500
상옥 부회장(충남 총친회장)	500
준석 부회장(전 동작구회장)	300
태섭 운영 위원(부산 사상구)	200
상락 운영 위원(동작구 회장)	200
규철 운영 위원(전 경남 회장)	200
상옥 운영 위원(고창군회장)	150
경열 이사(서울 성북구)	100
대희 이사(경기 고양시)	100
장섭 이사(서울 송파구)	100
장현 이사(대전 동구)	100
정복 이사(경기 시흥시)	100
정재 이사(서울 용산구)	100
모심 이사(경기 안산시)	50
합계	3,200

개인증보비 (7월~8월)

고유번호	이 름	구 분	총후원금
규근(전남 고흥군)	150	상문(충남 부여군)	30
해동 운영 위원(파주 시회장)	100	성부(경북 상주시)	30
양명 상임고문	100	문구(서울 서대문구)	30
경열 이사(서울 성북구)	100	고식(서울 서초구)	30
태섭 운영 위원(부산 사상구)	100	복원(서울 영등포구)	20
국범(서울 강동구)	100	장호 운영 위원(무주군 회장)	20
덕수(경기 평택시)	50	순택(서울 구로구)	20
청일(서울 마포구)	50	회수(서울 동작구)	20
현택(서울 노원구)	50	도성(서울 구로구)	20
무산(서울 관악구)	50	정민(경북 경주시)	20
기설(서울 송파구)	50	비 운영 위원(충남 예산군)	20
석용(강원 춘천시)	50	만찬(경기 성남시)	20
의수(경북 김천시)	50	광수(대전 서구)	20
상호 운영 위원(충남 부여군)	30	창성 운영 위원(서울 서초구)	20
진수(서울 강북구)	30	상락 운영 위원(동작구 회장)	20
영섭(전남 나주시)	30	상덕(충남 서천군)	20
재현(경기 성남시)	30	상만(경기 평택시)	20
상옥 이사(대구 동구)	30	일학 이사(인천 동구)	20
학동(경기 용인시)	30	규홍(서울 강남구)	20
근백(경기 부천시)	30	상희(전북 전주시)	20
황규(충남 홍성군)	30	정수(서울 강동구)	20
칭호(대구 동구)	20	기수(충북 청주시)	20
합계	1,951	수연(서울 도봉구)	20

▶5면에서 계속

장학기금출연자명단
(10만원 이상)

고유번호	이 름	구 분	총후원금
246	옹희	전남 장흥군	100
281	만익	서울 강서구	100
358	옹률	전남 영암군	100
440	경환	서울 서초구	100
452	기창	서울 노원구	100
467	석곤	전북 전주시	100
469	경순	주소불명	100
470	상선	서울 동대문구	100
472	기종	대전 대덕구	100
476	수근	대구 달구벌구	100
481	원호	서울 동작구	100
489	원근	서울 금천구	100
499	의산 시종친회	전북 의산시	100
512	병수	전북 의산시	100
513	상정	대구 담수구	100
526	종근	서울 광진구	100
531	영광군청장년회	전남 영광군	100
533	영민	서울 서대문구	100
543	상은	충북 제천시	100
551	동우	서울 종로구	100
555	창호	서울 광진구	100
562	경연	서울 성북구	100
590	상원	인천 중구	100
597	수택	서울 광진구	100
601	기홍	대전 중구	100
616	윤호	서울 강동구	100
684	상배	서울 관악구	100
685	영석	충북 청주시	100
691	석환	충북 충주시	100
698	영애	경기 수원시	100
709	준범	충남 태안군	100

고유번호	이 름	구 분	총후원금
718	승학	서울 노원구	100
724	남수	전남 장성군	100
726	문덕	서울 구로구	100
727	성동	서울 용산구	100
744	상용	강원 춘천시	100
779	상린	경기 화성시	100
785	민세	경남 통영시	100
796	용태	대구 북구	100
818	문수	충남 서천군	100
823	봉룡	서울 강남구	100
835	수만	경남 통영시	100
857	형수	서울 서초구	100
859	종우	서울 동대문구	100
867	영민	서울 동대문구	100
868	정우	강원 인제군	100
869	종열	대구 중구	100
872	상숙	전남 여수시	100
887	진수	경남 진주시	100
893	정희	서울 용산구	100
908	상홍	서울 종로구	100
909	기초	서울 도봉구	100
914	태희	충남 보령시	100
919	만우	강원 춘천시	100
930	지웅	서울 종로구	100
1643	기현	인천 계양구	100
941	승완	대구 북구	100
954	신탄진종친회	대전 대덕구	100
958	국선	경북 영천시	100
965	제경상(경상 기원 문집)	서울 강서구	100
968	금순	경기 고양시	100
1038	창우	대구 중구	100
1079	영수	광주 동구	100
1128	용호	경기 성남시	100
1238	성진	광주 북구	100
1395	인석	서울 동작구	100

고유번호	이 름	구 분	총후원금
------	-----	-----	------

한용운선사 '2008 만해축전' 성황 8월 11~14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불교지도자, 독립운동가, 시인으로 한국근대시에 큰 발자취를 남긴 한문의 위대한 선각자인 만해(萬海) 韓龍雲(1879~1944) 선사(禪師)의 생생 사랑, 나라 사랑, 인류 사랑, 평화 사랑 사상과 열을 가리기 위한 '2008만해축전'이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강원도

백담사 인근의 '만해마을'에서 수 많은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2008만해축전' (만해사상실 천선양회·강원도·인제군·조선일보사·주최)은 12일 오후 만해마을에서 임재식을 가진 다음 평화, 문학, 학술, 포교 등 4개부문의 만해대상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12회째를 맞는 '만해대상'은 그동안 외국의 원수,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 각국의 저명인사들에게도 시상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권위가 있는 대상으로 발돋움하여 한문의 큰 영예가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올해는 전국 60주년, 한국현대시(詩) 100년, 축전 10회를 맞아 그 뜻을 더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카스트제도 철훈운동에 혼신한 로카미

트라 인도 잠부드비파회 회장(평화), 문학평론가 이어령 전문화부장관(문학), 김태길 학술원 회장(학술), 혜자도선사 주지스님(포교),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포교)가 수상했다.

'만해축전'은 11일 오후의 만해시인학교 임교식을 시작으로 한국현대시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님의 침묵' 서예대전, 문학의 밤 등 20여개의 행사를 '만해마을' 일대에서 펼쳤다. 12일의 임재식과 시상식에는 학계, 종교계, 관계, 문화계의 많은 저명인사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한국현대시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에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하여 만해의 사상을 기리는 '만해축전'이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879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한 만해는 1905년 백담사로 출가, 승려가 된 후 한국불교의 개혁과 대중화를 주도하면서 '조선불교유신론'을 펴냈고, 종합문예지 '유심'을 발간, 시, 소설 등의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개혁과 정신개혁을 주도했다.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다 옥고를 치렀으며, 1920년대 중반에는 88편의 시를 모은 그 유명한 '님의 침묵'을 발표했다.

충정공파 회장에 瑫洙 중앙회장 선임



충정공(徽應公)파 종회는 지난 6월 8일 충회를 열고 현수 중앙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相瑞 직전회장은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이어 7월 11일에는 수원역 애경백화점 6층 북경에서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열고 신임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충정공파와 청녕군파 간의 학합을 한층 더 공고히 다지기로 결의하는 한편 (1)충정공의 전기 집필과 세미나에 관한 건 (2)충정공 사당 및 관리사 등의 마무리공사에 관한 건 (3)청녕군파 대여금에 관한 건 등 안건을 심의했으며, 충정공파 종회 신구회장 및 총무간 업무 인수 인계도 있었다.

한진희일가 경찰대학장 전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중이던 한진희일가는 취임한지 4개월 15일만에 지난 7월 22일 경찰대학장으로 전보(轉輔)되었다. 최강화 경찰청 대변인은 "한청장은 2개월여 지속된 촛불집회로 인해 심신이 지친 상태여서 스스로 보직 변경을 요청했으며 올해 말로 연령정년을 맞는 자신의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한청장도 "7월초부터 촛불시위가 정리되면 바뀌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했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韓熙일가 소속된 포스텍 연구팀

비휘발성 초고밀도 Fe램 개발

포항공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희(30·33세손·안양공파)일가가 소속된 포스텍 연구팀이 독일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한 차세대 비휘발성 초고밀도 Fe램의 연구 성과가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지난 6월 15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한희일가는 남원 출생으로 남원교육문화회관 연구원으로 있는秉吉일가의 아들로, 서울시립대학과 포항공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31세손 안양공파 鑑洙일가 제공)

7월 산행 충남 서대산으로



는 장룡산, 대성산, 황악산, 대둔산 등 배두대간과 금남정맥의 명산들이 펼쳐져 있으며, 정상 북서 편 법당 안골에는 개덕폭포, 개인사, 닭벼슬바위 등이 구름다리와 어울려 빼어난 경관이다. 27일 오전 11시경 서대산 드림리조트 주차장에 도착, 20여명은 산행을 하였고 그 외 회원은 탑방로를 따라 가벼운 산책을 겸해 주변경관을 관람했다. 약 4시간에 걸친 산행길은 대체로 경사가 가파랐으며 전날 내린 빗물로 미끄러운 구간이 있어 여름 산행지로서는 쉽지 않은 코스였다. 특히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는 산행을 더욱 어렵게 했지만 정상에 오르니 시원한 바람이 맞아 주었고 내려다보이는 조망은 쾌청하고 아름다워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정상에서 정상주를 걸들여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회원간의 훈훈한 정을 나눈 후 하산하여 주차장 앞 이안하우스식당에서 모두가 합류했다. 오리백숙으로 차려진 이날의 식사는 상남재정부장이 식대 일체를 찬조하여 회원들로부터 감사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글·사진 鍾仁)

청한산악회

중앙회 부회장 7명 보강, 7명 변동 광역시·도회장, 종파회장 교체 따라

중앙종친회(회장 현수)는 지난 상반기 중에 석관(법률), 만희(교육)일가를 전담부회장으로, 준석(전 동작회장), 선종(영진토건사장), 상영(송산빌딩 전무), 백수(군산시회장), 상홍(전국 철도공상회 회장)일가 등 5명을 자문역부회장으로 각각 임명, 보강했다. 또한 5명의 신임 광역시·도회장과 2명의 신임 종파회장이 정관 규정에 따라 자동케이스로 각각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옥두회장 ▲대구·경북 희설회장 ▲강원도 철남회장, ▲미 뉴욕 태희회장 ▲미 샌프란시스코 경수회장 ▲문간공파 이택회장 ▲몽골공파 근수회장.

"재정난 타개위해 이사 회비 납부 시급" 현수회장, 각급 지역회장, 종파회장에 서한

중앙종친회 瑕洙 회장은 지난 8월 18일 전국의 광역시·도회장, 시·군·구회장, 각 종파 회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1년에 100,000원인 이사(理事) 회비 납부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종친회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고, "종친회의 발전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들의 회비를 송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현수회장은 서한에서 "이사 회비(부담금)는 각 광역시·도, 시·군·구 및 문중 종비에서 일괄해서 부담하기로 임원회의와 정기총회에서 결의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특히 올해는 전 종원의 참여와 관심을 둑려하기 위해 시조시향을 전·현직 3총리를 모시고 성대하게 봉행할 계획이고, 세일재 보수, 선조들의 위대한 치적을 발굴하는 작업 등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한준우일가 킨텍스시장에 선임



KOTRA 사장을 역임한 한준우 일가가 지난 7월 29일 KINTEX(일산 소재 국제전시장) 사장에 선임되었다.

준우일가는 1977년 KOTRA에 입사 후 기획조정실 마이애미 무역관장, 뉴델리 무역관장, 아시아대양주지역 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2005~2007년까지 AFEC 무역진흥실무 회의 의장을 역임하는 등 무역과 통상분야의 전문가이다.

부 을

중앙종친회 성교고문 모친상

한중제야 대표이사이며 중앙종친회 고문인 성교일가의 모친께서 지난 8월 2일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沃斗부산종친회장 장남 강혁일가 별세

부산종친회 옥두회장의 장남 강혁(41)일가가 지난 8월 13일 경남 김해시 상계동 조은 금강방원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6면에서 계속

- 안병학, 『삼당파(三唐派) 시(詩) 세계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8.
- 안병학, 『백광훈시소고(白光勳詩小考)』, 『어문논집』 27,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소 1987.
- 안병학, 『이발(李達)의 시(詩) 세계에 있어서의 속박(束縛)된 자아(自我)와 그 변주(變奏)』, 한림대부설 태동고전연구소 1988.
- 안병학, 『최경창(崔慶昌)의 시(詩) 세계와 삶의 안전성에 대한 회의(懷疑)』, 한림대부설 태동고전연구소 1988.
- 안병학, 『이행(李行)의 시(詩) 세계에 있어서의 현실긍정과 풍류』, 한림대부설 태동고전연구소 1988.
- 오끼와 다미끼, 『심경호 번역』, 『당시개설(唐詩解說)』, 이희문화사 1998.
- 윤지중, 『당사(唐詩) 해석과 감상』, 도서출판 글벗사 1994.
- 이기석, 『당송팔가문(唐宋八家文)』, 흥신문화사 1996.
- 이동환, 『조선후기에서의 민요취향의 대두』, 『한국한문학연구』 3~4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79.
- 이은호, 『이백시(李白詩)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1.
- 이종무, 『해동강서시파(海東江西詩派)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4.
- 이종무, 『한국한시(漢詩)와 철학』, 한국한시연구 I, 한국한시학회 1993.
- 장원모, 『파취한시(把翠軒漢詩)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986.
- 임기중, 『연행록(燕行錄) 연구』, 일자사 2002.
- 정민, 『한시미학산책』, 도서출판 솔 1998.
- 손종섭, 『이·두시 신흥(李·杜詩 新脣平)』, 정신세계사 1996.
- 손종섭, 『옛 시정(詩情)을 더듬어』, 정신세계사 1996.
- 최락도, 『정여립(鄭汝立)사상연구』, 명지대 석사학위 1998.
- 홍우흠, 『한시론(漢詩論)』,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1.